

연중 제 23 주일

기도서	429면 (A해)
제1독서 : 에 제	33, 7-9
제2독서 : 로 마	13, 8-10
복음 : 마 태	18, 15-20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오 18,18).

□ 강론



기도 ! 그것은 다 성취되는가?

한 봉 섭 신부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오 18,19-20) 오늘 복음의 한 귀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일에 있어 실망에 빠지기 쉽다. 이 귀절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다 부인할 것이다. 온 가족, 온 교회가 일치하여 기도했어도 성취하지 못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기도는 이기적이어서는 안된다. 이기적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생각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올려서는 안된다. 우리의 생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요,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이기적 동기를 깨끗이 떠난 합심기도여야 한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남에게 해되기 쉽고, 자기만의 성공을 위한 기도는 남의 실패를 뜻할 수도 있다. 이기적이 아닌 기도는 늘 응답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기도의 근본 법칙, 곧 기도의 응답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 지혜와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생각, 공포, 희망, 소원을 담은 우리의 기도는 대개 도피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응답은 도피의 길이라 아니라 승리의 길을 보여 주신다. 하느님은 우리를 인간적 환경에서 도피시키지 않으시고 거기 대처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그 가장 완전한 예가 게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이다. 그분은 그 비극을 견딜 능력뿐 아니라 승리할 힘까지 받으셨다.

단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소수나 다수의 기도모임에 다 임하시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수효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일치된 마음의 중요성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된 마음의 기도가 이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 때, 그 자리에 오시어 각 개인에게 자기 전부를 주신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았다.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생을 바친 거룩한 순교 성인들을 본받아 이기적이 아닌 이웃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성취를 이루어 누리자!

(교창 주임신부)



9월이 오면

억수로 쏟아지는 비와 죽음, 그리고 물에 잠긴 들판을 일찌기 이렇듯 자주 보아 온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녕 이것이, 물고문을 해서 안된다는 하느님의 꾸짖음이신가? 아니면, 인간이 제 할 바를 다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필연적인 응징인가? 어쨌든 이제 그토록 지루하고 긴 여름이 그 막바지에 이르르고, 9월이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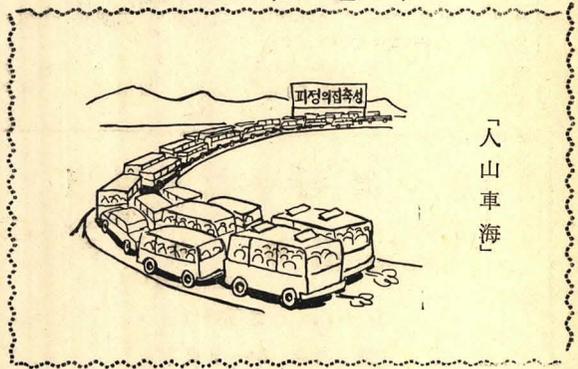
9월을 우리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다. 시성식이 있기 전까지는 <복자성월>이라는 용어로 귀에 익었던 이 9월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교자란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을 말하며, 「증인」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순교란 ①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②그 죽음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하여 초래되어야 하며, ③그 죽음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순교자는 그리스도 교인의 씨앗”(베르톨리아노)이라는 말처럼, 한국 천주교회는 숭한 순교의 바탕 위에서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 우리 전주교구도 예외는 아니고, 이제 우리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유항검과 그 가족(유요한과 이누갈다)으로부터 시작해서 윤지충과 권상연,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과 7위 성인으로 이어지는 피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피흘려 순교하지는 못하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사는 모습으로 하느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 9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의 역사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자.

숲 정 이 산책



□ 주교님 말씀

“인사 드립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8일 교구를 떠나 북미와 남미의 교포 사목방문을 마치고 지난 8월 24일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다녀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대권 신부님의 불의의 사망을 비롯하여, 한봉섭 신부님의 부친상과 박중신 신부님의 모친상 등, 큰 슬픈 일들이 생겨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데 대하여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일정이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당사자는 물론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늦게나마 마음으로부터 깊은 애도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수해와 서울교구 젊은 신부님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슬픈 사건에도 함께 하지 못한데 대하여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과 애통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위안을 기도드리며 마치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몇 교포교회를 방문하였고 특히 교포사목을 하시는 우리교구 신부님과 페루에서 선교활동을 하

시는 세분의 신부님을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특히 페루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세분의 신부님들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주교구의 첫 선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활발하게 일하시는 모습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신부님들께서 항상 교구를 잊지 않고 기도로 일치하고 계시며 교구민 모두에게 뜨거운 정과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성원을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부재중이었던 그동안, 교구의 모든 일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교구를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10월 1일의 50주년기념 본 행사가 우리의 계획대로 기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일치와 사랑 안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7. 9. 1.

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



25일 남았다.

우리의 친구들도 초대하자.



50주년 기념행사의 날로 정한 10월1일이 이제 꼭 25일 남았다. 5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가며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1784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과 때를 같이 하여 이땅(조선)에도 유학정 할아버지에 의해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후 피흘려 지킨 신앙은 1937년에 이땅에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가 세워졌다. 그때 우리 교구의 신자수는 241명이 모자라는 2만명이었고, 50년이 지난 오늘에는 다섯배로 늘어났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16만의 신자가 10배도 더 넘는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도세 자체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성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는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그런데 이 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르려면 적어도 3만명 정도가 모여야 한다. 우리 교구 전체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렵보일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전복출신 신자들은 이 뜻깊은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50대의 버스를 대절했다. 적어도

2천여의 형제자매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은 새벽 6시에 서울을 출발한다고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4시부터는 서둘러야 한다. 그때야 집을 나서서 집결지까지 제 시간에 다다를 수 있다. 참으로 돋보이는 열성이다.

우리들도 몇년전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밤 버스와 밤 열차에 몸을 실은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차에서 내려 서울의 새벽공기에 잠을 깨며 2~4km씩 걸어서 행사장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 10월 1일은 우리의 뜻깊은 잔치날이다. 바로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나 또 한번 모여 보자. 행사장에 9시까지 도착해야 하니 새벽 6시에는 집을 나서야 할 형제자매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이번 행사에 아직 신자가 아닌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하자. 아직 한번도 전교해본 적이 없는 형제자매들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친구들에게 천주교회를 알리고, 또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느님께 봉헌하자. 이것이야말로 묵숨바쳐 신앙을 이어준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땅에 임하도록 말이다.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크리스티나)

이 승 열(엘리아)

울 전주 84-7272

판통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신경외과 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균(아오싱) 윤귀자(로사리아)

☎ 병원 84-7266 자택 6417

전주 판통로 전주백화점→다가고 중간지점



교 구 소 식

천주교 전주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성곡과 가곡의 밤

일시 : 1987년 9월 25일(금) 오후 3시30분·7시30분 장소 : 전북 학생회관
주최 : 천주교 전주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회원권 : 3,000원(각 본당사무실에서 구입)

- ◎ 50주년 수송관계 통보바람 : (행사계획 p.5 참조) -10일까지
- ◎ 50주년 사목회장 회의 : (행사계획 p.7 참조) -12일(토) 오후 3시
- 1. 임시 참사회 : 9일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 2. 50주년 상임위원회 : 8일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 3. 젊은이 형태의 모임 : 장소-이리 클라라 수녀원, 일시-6일(일) 오후 4시
- 4. 군중위원회 9월중 윌레미사 : 7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 5.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일시-8일 오전 10시
 - ① 교육내용-생식생리와 접안관찰법 슬라이드 교육
 - ② 대상-미혼자, 임신이나 피임을 원하는 분
 - ③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2층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 ※ 개별지도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6. M·E 정기총회 : 12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참고-대의원 참석
- 7. 전주지구 스녀꾸리아 : 13일 오후 1시30분 전통성당, 대상-각 pr간부 참석요망
- 8. 웨골라레 모임 : 16일(수)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에서
마리아 불리에 한번 이상 참석하신 분과 웨골라레(젠) 운동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 9. 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 피정 : 일시-21일(월) 오후 7시30분~22일 오전 6시까지
장소-윤호관(전주 해성중·고 강당), 초청강사-성모님 메시지 전달자이신 스테파노
노퐁미 신부님·한연홍 신부·김보나 수녀, 대상-모든 분, 참가비-없음
- 10. 베소라성서(고급반) 개강 : 15일(매 화요일) 오전만-10시~12시 구약(모세오경)
오후만-7시~9시 신약(공관복음), 회비-매주 1,500원, 장소-가톨릭센터 3층
- 11. 경로수녀회 섬소자 피정 : 일시-12일 오후 4시~13일 오후 5시까지
곳-천주 경로회 수녀원(성심양로원) (0431-2-6697), 준비물-세면도구
대상-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영세한지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28세미만 미혼여성

잡 각 !

천후 피정의 집, 축성식 무사히 마쳐

8월 31일, 태풍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우리들의 걱정과 기우가 깨끗이 걷히는 기쁨 속에 복된 날이었다. 평협 통계에 의하면 행사 당일 대형버스만도 160여대였다니, 그외 승용차와 붓고 등을 생각하면 가히 짐작이 간다. 8,000여명의 신자들과 비봉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성황을 이룬 이날, 제1부 축성미사에서 성당과 기타 피정의집 시설 축성이 있었고, 제2부 기념식에서는 총대리 김환철 신부의 기념사, 그리고 관리국장 신부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 집을 설계한 CNU설계소와 그동안 어려운 공사를 맡아 지어낸 김후영(도비아)씨에 대한 교구장의 감사패 전달, 그리고 피정의집 건립과 여산성지 개발에 많은 헌금으로 도움을 주셨던 이바올라 외 13명의 서울신자들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했다.

이날 교구장 박주교님은 교구내 모든 본당 신자들이 정성을 모아 이렇게 훌륭한 피정의 집을 마련케 된바, 큰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과 앞으로 신자들뿐 아니라 이교장 모든이에게 도움을 주는 신심연마의 집으로 많이 이용해 줄것을 당부하셨다. 축성식과 기념식이 끝난 후, 농악이 울리는 중, 집안을 둘러본 모든 신자들은 이제사 내집 마련이라도 한듯 기뻐하며 한결같이 깔깔하고 아담하고 그리고 예쁘게 지어진 집이라고- 진입로 포장공사가 한창이라서 교통의 혼잡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주차장 시설의 시급함과 당일 교통정리의 미숙함을 지적, 앞으로 행사에 참고토록 하자는 충고의 말도 있었다. 어쨌든 모처럼의 좋은 날씨에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마치고 뒀음을 하느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50주년 기념 본 행사인 10월1일에는 모든 교구민이 더 많이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자.

요심이(735) 김병오



1분 명상

사막도
우연의 발생이
아니고
하느님의
안배이다.
-톨스토이

명동피부과의원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의과의원
물리치료실 부설
외과전문의
소흥영(요 한)
유인걸(유리안나)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85-3668
자택 85-8129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 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더)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원주농협·우신호텔 앞)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베소라성서
(고급반) 개강
일시 : 9월15일 매 화요일
◎오전반 : 10시~12시
구약(모세오경)
◎오후반 : 7시~9시
신약(공관복음)
회비 : 매주-1,500원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심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반미사안내 : 9일 오후 8시, 14번-유정자(85-5781)
1.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2. 10월 1일 영세예정자 교리 : 어제(5일)부터 시작
3. 주부를 위한 하루피정 : 11일(금) 오전10시~오후6시
대상-가정주부, 지참물-도시락·회비 1천원
강사-예수교난회 박도민교수사
4. 모임 : 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오늘 오후 3시
상지회-9일(수) 오후
반장회합-11일(금) 어머니미사 후
오월의 마돈나 꼬미씨을-다음주일 오후 2시
5. 고등부 2학기 교리개강 : 오늘, 학생미사 후
6. 교구 50주년기념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마무리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니다
신일 및 현금납부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16,100원 교무금 : 1,055,5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차주는 친교주간 : 반장님 회의-공식미사 후
3. 예비자 입교식 2단계 : 차주 공식미사
4. 본당 전체 M·E 가족셀링 : 20일
5. 모니카 월례회 : 7일 오전 10시
6. 신축현금, 50주년 분담금 : 현금납부에 협조바랍니다
7. 감사 : 신축현금-김숙 2만원, 김완식 5만원
8. 금주복사 : 김명수·김옥기 차주 : 이창우·문승욱
9. 금주봉헌 : 박영근 부부 차주 : 강남수부부
10. 미사안내 : 로사리오의 모후pr 차주 : 정의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 692,465원 교무금 : 446,000원
신축현금 : 70,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동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1. 오늘의 모임, 행사
사목회 임시총회-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전입원, 각 단체장, 구역장 참석바람
요셉회 월례회-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주일학교 개학식-2시(성당)
2. 순교자성월(9월)중 새벽미사는 치명자산에서 6시에
봉헌 ※ 본당에서는 저녁미사만
3. 전신자 합동 성지순례 : 27일, 새남터, 절두산(독립
기념관 경우) 참가비-1일 5천원
※ 참가신청 마감 : 18일까지만 접수
4. 성당 이동문고 활용 바람 : 교회서적 1주일씩 무료대
여, 신앙의 양식을 쌓읍시다
5. 교무금, 신축현금(미납분) 납부에 보다 큰 관심과
정성 바랍니다
6. 청년연합회 임시총회 : 다음주일(13일) 저녁미사 후
7. 금주 본당청소 : 평화의 모후-12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 663,680원 교무금 : 339,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욱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수녀원 신축현금 신일 및 납부현황
1일까지 총신입액-8,675,000원(128세대)
1일까지 총납부액-4,775,000원 감사합니다
1. 우리의 어머니 꾸리아 임원개편 : 단장-최연조,
부단장-이이준, 회계-문정순, 서기-신문자
2. 10월 1일 50주년 기념행사에 한사람씩 인도합니다
3. 예비자교리 : 성인-목 오후 8시30분, 중·고생-토
오후 6시, 주부반-금 오전 9시30분
4. 모임 : 애병회-오늘 공식미사 후
동명회-안나회·글라리아-차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회의-14일 오후 8시30분
5. 구역미사·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금주 구역미사·모임 : 화·금요일 오후 8시30분
8일 : 미사-동6구, 모임-팔3구
9일 : 나눔잔치-동원

- 11일 : 미사-성덕, 모임-동2구
7. 본당청소 : 자비의 모후 수녀님방문 : 증거자의 모후
8. 금주전례 : 해설-한기철, 독서-①김준권 ②김정숙
차주전례 : 해설-손택규, 독서-①노대권 ②김영원
(1) 지난주 봉헌금 : 246,420원(내동 16,530원)
교무금 : 109,000원 나눔의날 헌금 : 32,7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1. 오늘의 모임
사목회 월례회-공식미사 후, 지하실
(반장님 제단체장 포함)
청년회-저녁미사 후
2. 가정방문 : 8일-2반, 9일-4반, 10일-5·6반
3. 금주전례 : 해설-심상기, 독서-신완근·김광자
기도-장두성·박임주
차주전례 : 해설-이건창, 독서-이준희·문선영
기도-이강식·송순기
□ 지난주 봉헌금 : 228,410원 교무금 : 146,00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 감사 : 서울 동촌동천주교회 신자여러분 2차현금
1. 모임안내 : 성모회·푸른숲-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8일 10시
울뜨레아-8일 오후 8시
2. 대학부 사랑의나눔 1일 찾집 : 5~6일, 강당
(정화사업을 위한)
3. 초등부 고백성사 : 12일 오후 5시
4. 중·고 단체피정 및 발표회 : 12일 오후 10시~13일
오후 3시, 장소-성당, 회비-500원
준비물-세면·필기도구·가톨릭성가집·성경·담요
5. 중·고생 : 10월1일 50주년 행사준비 연습-토요일 배
사후와 주일 5시~6시30분
6. 초등부 성지순례 : 13일, 장소-화산천주교회
오전 8시30분 출발, 준비물-도시락·모자
차비-1천원(1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7. 미사안내 : 셋별의 모후
8. 금주 본당청소 : 화-하늘의 문, 토-증거자의 모후
9. 금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기도-신천우·권정신
봉헌기도-정주복·허옥순
차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기도-김영철·오순화
봉헌기도-윤유삼·김유자
□ 지난주 봉헌금 : 448,750원 교무금 : 263,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2. 오늘의 모임 : 사목회-공식미사 후
3. 금주의 모임 : 켈마회-10일 어머니미사 후
4. 다음주 모임 : 제대회-17일 어머니미사 후
5. 일상기도문 : (3,000) 구입하여 기도하세요
6. 성수 사용 : 성당에 들어올 때만
7. 제대회 성지순례 : 14일 오전 8시 출발
회비-5천원
8. 9월 본당청소 : 상아탑, 매주 월요일
9. 금주전례 : 해설-이순영, 독서-기도-최양만·진영희
봉헌-정수일·하정애
안내-강진근·박동철
차주전례 : 해설-최명자, 독서-기도-오승환·김인경
봉헌-박병택·김정혜
안내-안남근·나동진
□ 지난주 봉헌금 : 468,390원